

언론소비자가 갖는 이슈에 대한 태도가 언론의 공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안차수**

(경남대학교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조교수)

한국 언론의 공정성 논란은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커다란 이슈로 자리 잡았다. 기존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택적 원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구성방식과 실천에 관한 매체와 송신자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 언론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이 취하는 사회 갈등적 이슈의 기존 태도에 의해서, 그리고 미디어 내용의 편향을 지각하는 방향에 의해서 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 지각을 실험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와 정보원에 대한 인식은 대상을 판정하는 데 일종의 편향성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판단이론의 이론적 메커니즘을 뉴스의 공정성 판단에 적용하였다. ‘체벌법제화’와 ‘전시작전통제권’의 두 가지 이슈를 통하여 일방형, 양방형, 무판단양방형의 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실험한 결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태도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보도가 공정하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양면적 메시지 조건에서도 입증되었다. 자신의 입장과 동일한 메시지를 더욱 공정하게 느끼는 동화현상과 자신의 태도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더욱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대조를 통해 적대적 매체지각이 발생하였다. 균형된 메시지의 경우 중립집단은 공정하다고 느끼는 반면, 강한 태도를 가진 집단은 덜 공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대조편향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기존의 공정성 판단의 제한적 성격과 티당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언론 공정성, 사회적 판단 이론, 적대적 매체지각, 동화현상, 대조현상, 실험연구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chasuan@kyungnam.ac.kr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언론이 얼마나 공정한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그 기준에 대비하여 언론의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분석이다. 물론 이는 학계에서 사용하는 학문적 기법으로 언론의 공정성 측정이다. 반면, 언론소비자의 측면에서 공정성 측정이란 일반 개인이 내리는 언론의 공정성 정도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의미한다. 언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서의 공정성과 하부개념이 일정부분 언론소비자에게도 존재하며 이를 공정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문종대·안차수·진현승·안순태, 2007), 개인이 내리는 판단은 객관적일 수 없다는 많은 증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심판은 공정했다”라고 보는 반면, 상대팀 국민들의 대다수는 “심판이 불공정했다”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프린스턴 대학과 다테머스 대학의 미식 축구경기를 대상으로 한 하스포트와 캔트릴(Hasfort & Cantril, 1954)의 실험은 동일한 현상도 축구경기를 지켜본 관중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똑같은 경기를 본 양 대학 학생들이 상대팀 선수들이 더 많은 반칙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2000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플로리다주 투표용지의 논란도, 공화당 지지자들은 혼란을 줄 만큼 투표용지가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혼동을 하기에 충분했다는 상반된 의견을 개진했다. 보더웰과 브리검(Bothwell & Brigham, 1983)의 연구는 대통령 선거토론회를 지켜본 미국 시청자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자가 방송된 토론에서 승리했다는 당파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즉, 공화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후보인 레이건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인 카터를 토론회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04년 이슈가 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방송보도의 공정성 논란과 2005년 MBC PD수첩의 황우석보도에 따른 논란이 커다란 사회적 의견 분열로 파장을 일으켰다.

제시한 예들은 “똑같은 사물과 사건을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본 연구는 하나의 해답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태도(pre-existing attitudes)”를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이나 집단 혹은 사물에 대한 아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strongly held positive/negative attitudes)는 심판의 판정, TV토론회, 대통령 탄핵방송, 황우석보도와 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데 있어 일종의 편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소비자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기존의 태도(pre-existing or prior attitudes)가 언론의 공정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송신자와 매체 중심의 공정성 문제를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시도이며, 아울러 언론 전문가의 규범적인 접근방식을 벗어나 언론의 일반소비자가 공정성을 인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언론의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서 선형적으로 확립된 절대적 가치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자기 이해와 입장에 따라 형성되는 의식적 결과라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설정

1) 선택적 판단이론(selective judgement theory)과 공정성 판단

개인의 기존 태도나 신념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태도이론의 연구접근은 설득을 위한 태도변화에 초점을 둔 경우보다, 설득저항(resistance to persuasion)을 주제로 다룬 연구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연구의 관심이 태도변화에 있는 경우에 종속변인인 태도 혹은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주요한 고찰대상인 반면, 태도저항의 경우는 반대로 기존의 태도나 신념이 설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태도변화연구에 따르면 강한 태도를 가진 개인의 경우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심리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진 사실이

다(Eagly & Chaiken, 1997). 왜 강한 태도는 설득이 어려운가 하는 질문은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그것의 영향력을 밝히려는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심리학 연구에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등장한 “선택성(selectivity)이라는 개념은 매스컴 연구에서 선택적 노출, 선택적 주의, 선택적 지각, 선택적 판단, 선택적 기억과 같이 주로 설득의 제한적 성격과 설득 저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선택성 연구의 핵심은 개인의 태도가 인지적 처리(cognitive processing)에 있어서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일종의 편견을 제공한다는 것이다(Eagly & Chaiken, 1993).

강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설득적 메시지 특히 기존 태도에 반하는 정보에 저항하는 경향이 높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정보가 자신의 동기나 욕구를 위협하기 때문으로 알려져왔다(Chaiken, Liberman & Eagly, 1989; Festinger, 1957; Kiesler, 1971; Kunda, 1990; Petty & Cacioppo, 1989). 채이큰과 동료들(Chaiken et al., 1989)에 따르면, 강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정보를 처리할 때 ‘정확성(accuracy)’에 동기화되기보다는 주로 ‘방어(defense)’에 동기화가 발생한다. 즉, 그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은 주로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통해 입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반면,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정보에 저항함으로써 기존 신념과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판단이론(social judgement theory)을 제시한 셰리프와 호브랜드(Sherif & Hovland, 1961)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태도 대상의 지각(perception)과 판단(judgement)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¹⁾ 추의 무게를 판단하

1) 노출(exposure)과 주의(attention)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태도와 관련된 지각(perception)과 판단(judgement)의 구분 역시 가능하다. 지각은 정보의 입력과 관련된 것으로 주어진 대상이나 자극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반면에 판단은 정보의 평가적 의미나 정보가 목표에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통상관련정책에 대한 정치인의 발언을 접한 개인은 그 정치인이 정책에 대한 어떤 논지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를 지각이라고 하고, 그 정책이 국가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판단에 해당한다. 메시지의 동화-대조를 다루는 연구는 ‘지각’이, 메시지의 공정성을 다루는 연구는

는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141g의 기준무게(anchor)를 들게 하고 “이 추가 가장 무거운 무게이다”라고 한 뒤 55~141g 사이의 추를 평가하라고 하면 실제로 가벼운 것들도 무겁다고 평가하는 동화현상(assimilation)이 발생한 반면, 193g 이상의 기준 무게를 들게 한 뒤 55~141g의 추들을 평가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무거운 것들도 가볍다고 평가하는 대조현상(contrast)이 발생하였다(Sherif, Taub & Hovland, 1958). 즉, 수용 가능한 범위인 수용의 범주(latitude of acceptance)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개인의 판단과 차이가 존재함에도 더욱 가까운 것으로 느끼며, 수용할 수 없는 범위인 거부의 범주(latitude of rejection)에 속하는 대상은 실제보다 더욱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비슷한 견해는 동화(assimilation)되는 반면, 자신의 의견과 동떨어진 견해는 대조(contrast)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존 태도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실제 주장을 지각하는 데 왜곡을 낳는다는 동화와 대조의 지각적 왜곡(perceptual distortions)은 더 나아가서 정보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뢰성과 공정성과 같은 설득의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Sherif & Sherif, 1967). 메시지를 평가함에 있어 자신의 견해와 유사성의 정도가 높은 정보(attitudinally congruent information)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편견이 개입되지 않았으며 사실에 근거해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반면에, 자신의 견해와 유사성 정도가 낮은(attitudinally incongruent information) 대조(contrast)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불공정하고, 편향적이며, 선동적이고, 거짓에 근거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화와 대조는 자신이 선호하는 판단 결론(preferred judgment conclusion)과 일치하는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preference-inconsistent information)에 비해 더욱 타당하며, 정확하고, 내적 인과성을 담보한다는 자기만족적 판단(self-serving judgment)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Beckman, 1973; Ditto & Lopez,

주로 ‘판단’이 연구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메시지의 판단(혹은 평가)이 이전의 지각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태도연구에서 통상 통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1992; Ditto, Jemmott & Darley, 1988; Kunda, 1987; Pyszczynski, Greenberg & Holt, 1985; Wyer & Frey, 1983).

사회적 판단이론의 관점에서, 대조는 자신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는 정보로부터의 설득적 영향력(persuasive impact)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적 노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과 차이를 보이는 주장을 접하게 되는 경우, 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기보다는 그 정보의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인지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 특히 자신의 의견과 아주 상반되는 견해를 싣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견해에 대해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논리성을 기능하기보다는 그 정보는 불공정(unfair)하다는 평가는 물론 심지어 선동적이라는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신의 신념을 보호하고 인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Sherif & Hovland, 1961).

자신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강한 태도에 의해 일반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평가할 때 편향을 낳는 문제는 오랫동안 실증적으로 검토되어 왔다(Ahluwalia, 2000; Biek, Wood & Chaiken, 1996; Ditto & Lopez, 1992; Ditto, Scapansky, Miller, McHoskey, Bane & Dowd, 1993; Munro, Apanovitch & Lockhart, 1998; Pomerantz, Chaiken & Tordesillas, 1995). 로드·로스·레퍼의 연구(Lord, Ross & Lepper, 1979)는 사형제도의 찬성자와 반대자들이 사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살펴본 것으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두 방향의 연구를 통해 편향적 평가를 밝혀내었다. 사형찬성론자들은 사형을 찬성하는 연구가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잘 수행된 연구라고 평가했고, 사형 반대론자들은 상반된 평가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후속연구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 태도가 강하고 보다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Houston & Fazio, 1989).

자신의 기존 태도와 배치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왜곡하여 처리하는 경향은 미디어 이용자가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미디어의 내용을 평가하는 현상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벨론·로스·레퍼의 연구(Vallone, Ross & Lepper, 1985)의 연구에서는 이스라엘 지지자, 아랍 지지자, 그리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집단이 베이루트 사건에 관한 TV 뉴스를 시청하였는데, 중립적 입장자는 중립적 입장을 보였고, 이스라엘 지지자는 TV 뉴스가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편향되었다고 한 반면, 아랍 지지자는 아랍인들에게 불리하게 제작된 뉴스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적대적 미디어’ 현상은 TV 뉴스가 두 집단의 기존 태도에 명백히 도전하여 자신들의 입장에 동화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즉, 당파적 입장의 시청자들은 TV 뉴스가 편향되었고, 선전적이며, 불공정한 것으로 자신들의 이해에 불리하며 따라서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재나·클로슨·달리의 연구(Zanna, Klosson & Darley, 1976)의 연구 역시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 이들은 학생과 경찰의 폭력충돌의 원인을 둘러싸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뉴스보도에 대해 학생 측과 경찰 측, 그리고 연구집단 모두 보도내용에 불만을 가지는 대조현상을 발견하였다.

한편 동화와 대조는 정치인에 대한 태도나 정치후보자의 이슈 입장에 대한 유권자의 지각과 관련되어 연구되었다. 알루왈리아(Ahluwalia, 2000)는 설득적 노력에 저항하는 심리적 과정 일환으로 ‘편향 동화(biased assimilation)’를 가설화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는 불일치하는 정보보다 더욱 타당한 것으로 지각하며, 만일 태도에 반하는 정보를 접할 경우 반박적 정보를 추구하려는 방어적 동기가 발생하여 설득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클린턴-르윈스키(Clinton-Lewinsky) 스캔들에 대해서 클린턴 지지자의 경우 “르윈스키가 신뢰할 만한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통제집단과 다른 후보지지자에 비해서 훨씬 높게 “아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대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클린턴 지지자의 경우 부정적 정보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고 반박하는 경향이 높은 편향적 동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Ahluwalia, 2000).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는 자신과 동일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자신이 싫어하는 후보는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Krosnick, 1990). 유권자들은 싫어하는 후보의 정책 입장을 대조하는 경향이 높으며 반대로 좋아하는 후보의 입장은 동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크로스닉(Krosnick, 1990)의 말을 빌리자면, 전자는 “부정투사(negative projection)”, 후자는 “긍정투사(positive projection)”로 불린다. 이러한 정보원과 이슈에 대한 평가는 균형이론에서 말하는 유권자의 정보원에 대한 태도, 이슈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보원의 이슈에 대한 태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강형(2007)은 유권자들이 텔레비전 후보 토론회를 시청한 후 후보의 정책적 입장과 관련하여 인지적 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관심이 높고 후보와 정서적 유대감이 낮은 유권자들의 경우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으며(‘합리적 투표’), 정치 관심이 낮고 후보자와 유대감이 강한 유권자들은 후보와 자신의 입장이 비슷하다고 편향적으로 지각하는 ‘선택적 지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동화와 대조가 유권자들의 입장과 대상에 대한 편향적 지각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 매체와 보도내용을 지각하거나 판단하는 경우 적대적 매체지각과 같은 편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적대적 매체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과 공정성 판단

벨론과 동료들(Vallone, Ross & Lepper, 1985)에 의해 처음으로 이름 붙여진 적대적 매체지각은 언론보도의 편향지각(biased perception)을 일컫는 말로 강한 의견을 가진 언론 수용자들(partisans)이 비교적 중립적인 미디어의 메시지를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편향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지칭한다. 한편 이에 대한 연구는 나아가 당파적인 사람(partisan)은 명백히 편향된 미디어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한쪽 편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 기사가 상대방보다는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식하는 “상대적인 적대적 매체 지각(relative hostile media perception)” 개념으로 확장되었다(Gunther & Chia, 2001; Gunther & Christen, 2002; Gunther, Christen, Liebhart & Chia,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해 찬반이 분명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과 일치되지 않는 정보를 접할 경우 그것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며 적대적으로 판단한다

는 적대적 매체 지각은 1982년 베이루트 대학살과 같은 중동문제에 대한 연구(Giner-Sorolla & Chaiken, 1994; Vallone et al., 1985; Perloff, 1998)를 필두로 지속적으로 검증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갈등적인 사회적 이슈의 보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운수노조 파업(Christen, Kannanovakun & Gunther, 2002), 라돈과 유전자 변형식품과 같은 건강문제(Gunther & Christen, 2002; Gunter & Schmitt, 2004; Gunther & Liebhart, 2006), 영장류실험 윤리(Gunther, Christen, Liebhart & Chia, 2001), 국가보안법(Cho, Yang & Chang, 2009), 사학법 재개정(황치성, 2007), 인재할당제(오택섭·박성희, 2005) 등과 같은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스포츠 뉴스(Arpan & Raney, 2003)와 대통령선거 보도(Dalton, Beck & Huckfeldt, 1998), 그리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Richardson, Huddy & Morgan, 2008; 오택섭·박성희·이강형·민영, 2008)와 같이 보다 일반적 혹은 비뉴스 장르에 적용되었다.

벨런과 동료들(Vallone et al., 1985) 그리고 가이너·소롤라와 채이큰(Giner-Sorolla & Chaiken, 1994)은 적대적 매체지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차별적 기준(different standards)에 의한 설명으로, 파당적 개인이 뉴스보도의 균형성을 올바르게 인식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이 더욱 정확하기 때문에 균등한 뉴스 할당과 같은 기계적 중립성은 적절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공정하게 편향된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측의 열등한 주장이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월등한 주장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해석은 선택적 범주화(selective categorization)로서, 찬반 양측 모두 뉴스의 세부사항을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자신들의 입장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사회적 판단이론이 말하고 있는 폭넓은 ‘거부의 영역’에 위치(선택적 범주화)시킴으로써 적대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기억(selective recall)에 의한 설명은, 뉴스의 중립적 사실들을 적대적으로 범주화 하지는 않지만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친아랍계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친이스라엘계는 아랍의 악행) 특히 잘 기억하게 됨으로써, 즉 뉴스보도가 양측을 공히 보도하였음에도 한쪽만을

기억함으로써 편향되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설명 메커니즘 중에서 선택적 범주화는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황치성, 2007; Giner-Sorolla & Chaiken, 1994; Schmitt, Gunther & Liebhart, 2004). 슈미트 일행(Schmitt et al., 2004)은 유전자변형식품 실험연구를 통해 차별적 범주화와 선택적 기억의 설명틀을 유전자변형식품의 실험연구를 통해 밝혀내었다. 특히 차별적 범주화는 대별되는 두 당파의 사람들이 같은 내용과 같은 방향의 기사를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편향을 지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함으로써 적대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건서와 슈미트(Gunther & Schmitt, 2004)는 적대적 매체지각이 사회적 판단이론의 동조편향(assimilation bias)과 상충되는 설명논리에 대해서 보다 정교한 조건들을 통해 해소를 시도하였다. 즉, 사람들이 정보를 상대편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보다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편향된 동화는 정보가 자신의 입장에 불리하게 편향되어 있다고 느끼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배치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편향동화는 개인적인 범위에서 적대적 매체 지각은 매스미디어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지한다는 것이다. 즉, 메시지의 도달 범위가 낮은 경우(low-reach condition)와 높은 경우(high-reach condition)에 따라서 편향동화가 일어나거나 적대적 미디어가 발생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당파적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자신의 개인적 견해에서만 평가한다면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같은 정보라도 악의적 방향으로 편향되었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급력(perceived influence)이 낮은 학생들의 작문 에세이와 과급력이 높은 신문기사에 대한 지각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하였다.

이것은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 과급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논리의 역치를 적용한 것이다. 당파적인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 널리 과급될 수 있는 성질이라고 판단되면, 그 정보를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만스러운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자신보다 타인이 부정적 영향에 더욱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볼 때 중립적이거나 유리한 정보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혹은 불리한 방향으로 설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적대적 미디어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의 상정은 여전히 명확하고 충분한 해답으로 불충분하며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프로닌과 동료들(Pronin, Gilovich & Ross, 2004)은 자아존중(self-esteem)의 측면에서 자신은 객관적 현상을 직시할 수 있다는 순진한 사실주의(naive realism)가 편향된 동화를 만들며,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직면해서는 그 사람이 편향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 다른 사람이 언론인이라면 적대적 매체지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앞서 설명된 인지부조화 이론의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Zanna et al., 1976)으로,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평가하거나(편향동화) 언론의 중립성, 균형성, 독립성을 편향된 것으로 훼손함으로써 부조화를 경감시킨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밖에도 사회정체성 이론은 적대적 매체 지각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개인들은 집단 갈등의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범주화하고 반대집단에 대항한다는 점을 지적한다(Matheson & Dursun, 2001; Tajfel, 1982). 집단 내의 심리적 과정이 메시지의 정확도와 편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에 대한 사전신념(prior beliefs) 역시 특정한 프로그램이 편향되었을 것이라는 편견을 이끌 수 있다(Giner-Sorolla & Chaiken, 1994). 사전신념은 판단적 발견법(judgmental heuristics)으로서 사람들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기존 신념이 해당 언론사의 프로그램이나 보도가 편향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와 같이 보수와 진보매체에 대한 사전 태도가 사학법 재개정(황치성, 2007)이나 인재활당제(오택섭·박성희, 2005)에 대한 기사 및 기자를 편향적으로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코와 일행(Coe et al., 2008)은 사람들이 CNN, Fox News 그리고 The Daily Show에 대한 사전신념에 따라 편향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상대적인 적대적 매체지각을 입증하였다.

매체에 대한 기존신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나 기사의 편향이 발생한다는 코 일행(Coe et al., 2008) 연구의 장점은 현대 미디어가 당파적 성격이 짙어지고 이념적 정향에 의해서 더욱 분명한 성격을 띄어가는 현상을 반영하여 상대적인 적대적 매체 지각(relative hostile media perception)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체에 대한 기존신념은 연구자와 전문인에 의해 매체의 통상적인 분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 매체에 대한 이념적 분별은 일반 언론소비자에게 있어 용이하지 않을 수도 또는 매우 상대적인 평가의 작업일 수 있다. 즉, 언론소비자가 보는 공정성의 잣대는 전문인들과 차이가 날 수 있듯이(문종대 외, 2007), 일반인에게 있어 매체에 대한 사전지식과 신념 역시 명확하지 않거나 사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체에 대한 인식에 의해 적대적 매체지각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기존 태도와 기사 주장의 일치성의 인식에 의해 상대적인 적대적 매체지각을 살펴보고자 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본 실험은 사회적 판단이론에 근거하여 대조효과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적대적 매체지각을 거부의 영역(latitude of rejection)의 선택적 범주화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슈관련 태도가 강한 찬반 양 집단에 대해 중립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 상대방보다는 자기에게 불리하게 편향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절대적인 적대적 매체지각’과 일방적으로 편향된 이슈관련 언론보도를 각자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상대적인 적대적 매체지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의 이슈에 대한 기존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는 매체 내용의 편향 지각에 대입하여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호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예일대학 연구팀(Hovland, Janis & Kelly, 1953)의 일방형(one-sided), 양방형(two-sided), 그리고 무판단양방형에 의한 미디어 내용의 편향성을 세분하여 구성하였다. 일반 언론소비자들이 언론의 공정성을 판단할 때, 균형성과 중립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한다면(문종대 외, 2007), 메시지 작성의 구성요소로서 일방형, 양방형, 무판단양방형과 같은 형태는 편향의 정도를 인지시키는 주요한 잣대로 작용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방형은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한 쪽만 강조해서 결론을 내리는 기사이다. 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경우 모두 일방형에 속한다. 둘째는 양방향으로, 주어진 이슈에 대해 양쪽 모두의 입장을 동등하게 다루되 한쪽의 입장을 부각시켜 결론으로 유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방형 메시지가 이슈에 대해서 한쪽의 의견만을 제시하여 주장을 펼친다면, 양방향 메시지는 상반되는 견해 역시 동시에 제시되지만 이것은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교를 위한 제시이며 이러한 부정적 정보의 제공이 오히려 강한 설득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Hovland et al, 1953). 한편 무판단 양방향은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양쪽 모두의 입장을 동등하게 취급하되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 기사를 의미한다.

3) 연구가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이슈에 대한 태도와 뉴스의 결론이 유사한 경우, “태도 일치”라고 부르고, 상반되는 경우 “태도 불일치”, 결론에 대한 태도가 약하거나 유보적일 경우 “중립”으로 칭한다. 뉴스 형태는 앞에서 언급한 3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일방형”은 일방적인 주장과 결론을, “양방향”은 찬반주장을 하되 일방적인 결론을, 그리고 “무판단양방향”은 찬반결론 없이 양측의 주장을 균등히 보도하는 뉴스 형태를 의미한다. 일방형과 양방향은 편향된 메시지로서, 무판단양방향은 균형된 메시지로서 인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정 이슈에 대해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태도 일치”의 뉴스를 접했을 때 그 뉴스를 공정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태도 불일치”의 뉴스를 접했을 때 그 뉴스를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패턴은 “일방형”과 “양방향”의 편향된 뉴스형태에서 나타날 것이다.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균형된 주장을 펼치는 “무판단양방향”의 메시지에 대해서, “태도 일치” 집단과 “태도 불일치” 집단 모두 비슷한 정도의 공정성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와 아울러 태도가 강한 “일치집단”과 “불일치집단”은 “중립집

단”과 비교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반면, 이슈에 대한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립집단에서는 언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중립성”과 “균형성”이 가장 잘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무판단 양방향”이 가장 공정한 뉴스라고 판단할 것이다. 논의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일방형인 경우, 공정성 판단의 집단 평균값은 태도 일치 집단이 가장 높고, 태도 불일치집단이 가장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양방향인 경우 역시 공정성 판단의 집단 평균값은 태도 일치 집단이 가장 높고 태도 불일치 집단이 가장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3: 무판단양방향인 경우, 태도 일치집단과 태도 불일치 집단의 공정성 판단의 평균값은 태도 불일치 집단의 평균값과 차이가 없지만 중립집단에 비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4: 중립 집단의 경우, 공정성 판단의 집단 평균값은 무판단 양방향이 일방형이나 양방향보다 높을 것이다.

3. 연구방법

가설은 3×3×2 요인설계에 의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태도의 일치도(태도 일치, 중립, 태도 불일치), 두 번째 요인은 뉴스형태(일방형, 양방향, 무판단 양방향)이며, 세 번째 요인은 이슈의 형태(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이다.

1) 실험참가자

서울과 지역의 대학생 400여 명과 일반 성인 270명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사전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이슈태도와 강도에 따라 분류하여 선별하고 성실

하게 응답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제외시킨 결과 최종적으로 372명이 참가하였다. 이슈태도와 강도에 따라 일치, 중립, 불일치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뉴스형태와 이슈의 종류에 따라 무작위화를 통해 18개의 하위 그룹으로 각 집단별 20명의 피실험자를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2) 실험절차

사전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사전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이슈를 선택하고 실험 참가에 적합한 사람들을 판별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본격적인 실험에 사용할 이슈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태도를 조사하였다. 찬성, 반대, 중립이 대등한 정도로 분포되고 양극화가 뚜렷한 이슈를 골라내어 최종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부분에서 각각 1개씩 선택하였다. 사회적 이슈는 “체벌법제화” 문제가 선택되었으며, 정치적 이슈로는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문제가 선택되었다. 사전 서베이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된 이슈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의 태도에 따라 선별 분류되었다.

3) 실험물 제작

사전조사를 통해 선택된 2개의 이슈인 체벌법제화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언론 매체들의 보도 기사를 모아 편집을 통해서 ‘일방형’, ‘양방형’, ‘무판단양방형’의 3가지 형태의 뉴스 메시지를 조작하였다. 체벌법제화 뉴스 메시지는 체벌법제화를 반대하는 주장의 기사를 기본 형태로, 전시작전통제권 뉴스 메시지는 조기환수에 찬성하는 주장의 기사를 기본 형태로 채택하여 일방형과 양방형을 구성하였다. ‘무판단양방형’은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동일한 분량과 강도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정보원 편향(source bias)’과 매체에 대한 사전신념을 방지하기 위하여 뉴스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기사는 A4 용지 한 장 이내로 전문적인 보도기사처럼 편집되었다. 작성된 뉴스는 전문기자들의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 되었으며, 대학생을 상대로 기사의 이해도와 적합성 등을 측정하여 수정 작업을 거쳤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3가지 형태의 메시지 유형을 나누어 총 6종류의 메시지(체벌일방형, 체벌양방형, 체벌무판단양방형, 작통권일방형, 작통권양방형, 작통권무판단양방형)가 최종적으로 준비되었다. 각각의 메시지는 문장 구성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독이성의 외생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조작을 통한 실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등성 검사(message equivalence test)가 실시되었다. 베커 일행(Becker, Bravelas & Braden, 1961)이 개발한 독이성 검사(Index of Contingency)를 이용하여 메시지의 독이성 정도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사전 검토하였다. 검사결과 6개의 메시지는 총 423~42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명사는 281~294개, 그리고 반복된 명사는 169~177개로 구성되어 형식적인 동등성이 확인되었다.

4) 측정

이슈에 대한 태도는 7점 척도의 5개 항목이 사용되었다. 이슈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좋다/나쁘다”, “지지한다/지지하지 않는다”, “잘하는 것이다/잘못하는 것이다”, “어리석다/현명하다”, “해가 된다/득이 된다”의 항목이 사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포머란츠 등(Pomerantz, Chaiken & Tordesillas, 1995)이 제시한 태도의 확실성, 이슈의 중요성, 그리고 지식 정도로 구성된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는 질문항목을 추가하였다. 태도에 대한 확실성은 “이슈 A에 대해 당신의 견해를 바꿀 가능성은?” 그리고 “이슈 A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옳다는 확신의 정도는?”의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태도에 대한 중요성은 “이슈 A는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로 측정하였다. 이슈에 대한 지식 정도는 “당신은 이슈 A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로 측정하였다. 메시지별 양방주장 정도에 대한 측정은 3개 항목으로 “이 기사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쌍방의 주장을 담고 양쪽에 공평하다”, “이

기사는 한쪽의 주장이 지배적이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메시지별 난이도 정도는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기사는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든다”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의 측정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진술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20개의 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언론의 공정성 측정도구는 문종대 등(2007)에 의해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언론의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독립성, 상업성, 윤리성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요성과 적실성에 따라 문항 숫자 및 진술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표 1>).

<표 1> 종속변수의 하위개념 및 측정 항목

영역	진술
진실성	내용이 정확하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했다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취재를 했다
적절성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뉴스를 보도했다
	뉴스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했다
균형성	논점의 찬성과 반대를 골고루 보도했다
	상반되는 주장을 거의 비슷한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보도했다
중립성	찬반 의견이 갈릴 경우 중립적 입장(불편부당)에서 보도했다
	둘 다 좋고 둘 다 나쁘다는 식을 벗어나 책임의 경중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어느 한쪽을 봐주기 식으로 편들었다 특정세력을 의도적으로 밀어주었다
다양성	각계각층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취급했다
	폭넓은 정보와 견해를 고르게 보도했다
독립성	중요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거나 소홀하게 취급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가치를 뉴스에서 뒷받침한 것이다
상업성	오락적이고 흥미 위주로 작성되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다
윤리성	취재윤리와 기자윤리에 문제가 있다
	자사이기주의적으로 작성된 기사이다

4. 연구결과

1) 조작점검 및 신뢰도 점검

독립변수로서 이슈에 대한 일치도는 이슈태도와 이슈강도를 바탕으로 ‘태도일치집단’, ‘태도중립집단’, ‘태도불일치집단’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체벌법제화와 전시작전권환수에 대한 태도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여 사전 분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태도일치집단의 경우 중립집단과 불일치 집단에 비해 기사의 견해에 유의미하게 높은 긍정적 태도, 자기 확신, 사안의중요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메시지의 구성방법에 따라 ‘일방형 메시지’, ‘양방형

<표 2> 조작점검

독립변인		Mean	SD	유의도
<집단별 이슈태도> ⁱ⁾				
체벌법제화반대	태도일치집단	6.33	.57	F(2,182)=960.0
	태도중립집단	4.05	.58	p=.000
	태도불일치집단	1.54	.6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찬성	태도일치집단	5.93	.75	F(2,186)=379.5
	태도중립집단	4.11	.40	p=000
	태도불일치집단	2.45	.90	
<메시지별 양방주장 정도> ⁱⁱ⁾				
일방형 메시지		2.51	.82	F(2,368)=7.16
양방형 메시지		2.82	.76	p=.001
무단관 양방형 메시지		3.16	.77	
<메시지별 난이도 정도> ⁱⁱⁱ⁾				
일방형 메시지		3.47	.96	F(2,368)=.416
양방형 메시지		3.29	.93	p=.661
무관단 양방형 메시지		3.34	.94	

i) 이슈태도: 5개 항목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법제화를 반대하고 전작권 환수를 찬성.

ii) 메시지별 양방주장 정도: 3개 항목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쌍방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평가.

iii) 메시지별 난이도 정도: 3개 항목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

메시지’, ‘무관단양방향 메시지’의 조작을 검토하였다. 메시지가 얼마나 일방적인지 혹은 양방적인지에 대한 평가에서 처치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메시지 구성 방법에 따른 기사의 특이성에 따라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점은 외생변수로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난이도 검사를 베커 일행(Becker, Bravelas & Braden, 1961)의 내용 분석을 통한 독이성 검사(Index of Contingency)와 별개로 피험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메시지 형태에 따라 피험자의 난이도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메시지 형태 조작에 의한 난이도의 차이가 초래할 외생적 영향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각 측정의 항목 간 신뢰도는 이슈태도, $\alpha=.97$, 태도강도, $\alpha=.68$, 메시지방향, $\alpha=.73$, 난이도, $\alpha=.88$, 공정성평가, $\alpha=.88$ 로 나타났다.

2) 가설검증

<연구가설 1>은 보도형태가 일방형(one-sided)인 경우, 공정성 판단의 집단 평균값은 태도일치집단이 가장 높고, 태도불일치집단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계획된 비교검사를 통해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간 유의미한

<표 3> 이슈 태도 일치 정도에 따른 보도 공정성 평가 평균 점수-일방형 메시지

일방형 메시지 (n=123)			
이슈종류	태도일치 (n=41)	태도중립 (n=42)	태도불일치 (n=40)
체벌법제화반대	5.14(.68) (n=20) ⁱ⁾	3.98(.61) (n=22)	2.75(.56) (n=20)
전시작전통제권환수찬성	4.77(.92) (n=21) ⁱⁱ⁾	3.85(.47) (n=20)	3.54(.79) (n=20)
통합	4.95(.83) ⁱⁱⁱ⁾	4.64(.55)	3.14(.78)

i) 태도불일치와 평균비교, $F(1, 38)=145.39, p=.000$.

ii) 태도불일치와 평균비교, $F(1,39)=20.71, p=.000$.

iii) 태도불일치와 평균비교, $F(1,79)=100.77, p=.000$; 3개집단간 평균비교, $F(2, 121)=62.2, p=.000$.

차이가 발생하였다.

체벌법제화반대에 일치하는 견해를 가진 집단과 전시작전권환수에 찬성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도내용의 공정성 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위 연구결과는 일방적인 보도내용에 대하여 일치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불일치하는 견해를 가진 집단에 비해서 메시지가 보다 공정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한쪽의 주장만을 접한 수용자는 그 주장이 자신의 기존 태도와 신념에 일치한다고 느낄 경우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하다고 느끼는 대신,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느낄 경우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선택적 판단이론에 의한 일종의 편향성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기존 신념과 태도에 의해 동일한 언론 보도 내용임에도 공정성 판단은 극단적으로 나뉘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가설 2>는 양방향 메시지(two-sided)가 일방형 메시지보다 더욱 효과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형 메시지 처리와 마찬가지로 태도일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보도내용을 더욱 공정한 것으로 평가할 것을 예상하였다. 계획된 비교검사를 통해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양방향 메시지 조건 아래에서 태도일치집단의

<표 4> 이슈 태도 일치 정도에 따른 보도 공정성 평가 평균 점수-양방향메시지

양방향 메시지 (n=126)			
이슈종류	태도일치 (n=40)	태도중립 (n=43)	태도불일치 (n=43)
체벌법제화반대	4.67(.63) (n=20) ⁱ⁾	4.22(.48) (n=20)	3.43(.90) (n=20)
전시작전통제권환수찬성	4.62(.92) (n=20) ⁱⁱ⁾	3.93(.44) (n=23)	3.55(.98) (n=23)
통합	4.64(.60) ⁱⁱⁱ⁾	4.06(.48)	3.50(.94)

i) 태도불일치와 평균비교, $F(1,38)=25.06, p=.000$.

ii) 태도불일치와 평균비교, $F(1,41)=17.77, p=.000$.

iii) 태도불일치와 평균비교, $F(1,81)=42.98, p=.000$; 3개집단간 평균비교, $F(2, 123)=27.42, p=.000$.

공정성 평가 점수 평균값은 태도불일치집단의 평균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슈의 종류에 따라 분리하여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체벌법제화와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연구가설 1>의 연장선상에서 일방형 메시지뿐만 아니라 쌍방형 메시지 역시 수용자의 태도 일치도에 의해서 공정성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방형 메시지가 주장의 일방성(one-sided)만을 제시한다면, 쌍방적(two-sided) 메시지는 설득주장과 반대주장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반대주장의 부정적 측면을 논파하기 때문에 더욱 설득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Hovland et al., 1953). 따라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쌍방적 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설득적 효과는 보도내용의 견해에 일치하는 사람의 경우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욱 강하고 이것은 공정성 판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가설 3>은 메시지의 유형에 있어 무판단양방향 조건하에서 집단 간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와는 달리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제기하였다. 설득메시지와 반대메시지가 균형 잡히게 구성되어 있는 메시지를 접했을 경우, 일치집단은 설득적 메시지에 불일치집단은 반대 메시지에 호응할 것이므로 집단 간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또한 역으로, 일치집단은 반대 메시지에 불만을, 불일치집단은 설득 메시지에 불만을 가짐으로써 무판단양방향 메시지의 균형성이 이슈에 대한 양쪽의 태도에 통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계획된 비교검사를 통해서 집단 간의 비교를 실시한 결과 <연구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슈를 통합한 결과 태도일치, 태도중립, 태도불일치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관심 비교대상인 태도일치집단과 태도불일치집단 간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예상대로 대안 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5> 이슈 태도 일치 정도에 따른 보도 공정성 평가 평균 점수-무판단양방향메시지

무판단양방향(균형)메시지 (n=123)			
이슈종류	태도일치 (n=40)	태도중립 (n=42)	태도불일치 (n=41)
체벌법제화반대	4.14(.85) (n=20) ⁱ⁾	4.53(.93) (n=21)	4.20(.72) (n=21)
전시작전통제권환수찬성	4.09(.63) (n=20) ⁱⁱ⁾	4.54(.47) (n=21)	3.87(1.06) (n=20)
통합	4.12(.73) ⁱⁱⁱ⁾	4.53(.74)	3.82(1.00)

i) 태도불일치와 평균비교, $F(1, 40)=.136, p=.820$; 3개 집단 간 평균비교, $F(2, 59)=1.33, p=.272$.

ii) 태도불일치와 평균비교, $F(1, 39)=1.10, p=.321$; 3개 집단 간 평균비교, $F(2, 58)=3.882, p=.026$.

iii) 태도불일치와 평균비교, $F(1, 80)=2.95, p=.087$; 3개 집단 간 평균비교, $F(2, 121)=8.104, p=.000$.

위의 결과는 균형적 메시지를 접했을 경우, 주장에 일치하는 태도와 주장에 반하는 태도는 균형된 메시지의 구성으로 인하여 서로 상쇄하는 효과로 공정성의 판단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찬성하는 태도와 반대하는 태도가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 간 공정성 판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중립적인 집단의 경우, 일치와 불일치 집단에 비해서 무판단양방향 메시지를 보다 공정한 것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태도에 있어 중립적인 집단은 어떤 이슈에 있어 언론보도가 한쪽으로 편향됨 없이 제시된다고 느낀다면 그러한 보도를 공정한 것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연구가설 4>에서 본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4>는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지 않은 중립집단의 경우 일방향과 양방향을 통한 설득 메시지보다는 논점이 균형 잡히게 제시되어 있는 무판단 양방향의 메시지를 보다 공정하게 느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연구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태도일치성을 기준으로 메시지형태에 따른 공정성 평가 점수를 비교하였다. 계획된 비교검사를 통해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연구가설 4> 역시 지지되었다. 무판단양방향집단의 공정성 평균값은 일방적메시지집단과 양방향메시지집단의 공정성 평균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차별법제화와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이슈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립적 집단의 경우 무판단 양방향메시지를 일방향메시지나 양방향메시지보다 공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이슈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고 느끼는 메시지는 보다 공정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메시지구성형태에 따른 공정성 판단 평균 점수태도중립집단

태도중립 (n=126)			
이슈종류	일방향메시지(n=42)	양방향메시지(n=43)	무판단양방향 (n=41)
차별법제화반대	3.98(.61) (n=22) ⁱ⁾	4.22(.53) (n=20)	4.53(.93) (n=2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성	3.85(.47) (n=20) ⁱⁱ⁾	3.93(.44) (n=23)	4.54(.47) (n=20)
통합	3.92(.55) ⁱⁱⁱ⁾	4.06(.48)	4.53(.74)

i) 3개 집단 평균비교, $F(2, 60)=3.26, p=.045$.

ii) 3개 집단 평균비교, $F(2, 60)=13.06, p=.000$.

iii) 3개 집단 평균비교, $F(2, 123)=11.87, p=.000$.

5. 결론 및 논의

그동안 한국 언론의 공정성 논란은 저널리즘 윤리적 측면에서 혹은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커다란 이슈로 자리 잡았다. 기존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험적 원리와 기준에 대한 연구(강명구, 1993; 강태영, 2004; 문종대, 2004; 백선기, 2002; 이민웅 외, 1993; 이창현, 2002; 임태섭, 1993), 공정성의 구성방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문종대·윤영태, 2004; 박재영, 2005; 이준웅, 2005; 이준웅·최영재, 2005; 최영재·홍성구, 2004)를 포함하여 매체중심의 공정성 연구를 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 언론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이 취하는 사회 갈등적 이슈의 기존 태도에 의해서, 그리고 미디어 내용의 편향을 지각하는 방향에 의해서 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 지각을 실험연구

를 통해 고찰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와 정보원에 대한 인식은 대상을 판정하는 데 일종의 편향성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판단이론의 이론적 메커니즘을 뉴스의 공정성 판단에 적용하였다. ‘체벌법제화’와 ‘전시작전통제권’의 두 가지 이슈를 통하여 일방형, 양방형, 무판단양방형의 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실험한 결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태도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보도가 공정하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양면적 메시지 조건에서도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판단이론에서 말하는 동화(assimilation)현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방형과 양방형에서 체벌법제화 반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찬성하는 기존 태도를 견지한 사람은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에 비해서 메시지가 더욱 공정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더욱 공정하다고 인지하였다. 반대로 체벌법제화에 찬성하고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 일방형과 양방형 메시지 형태에서 주어진 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낌으로서 적대적으로 매체를 지각하였다. 즉, 주어진 메시지를 자신의 기존 태도에 벗어나는 거부의 범위(latitude of rejection)에 위치시키는 대조편향으로 인해 적대적 지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찬반주장이 균형 있게 보도된 무판단양방형 메시지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기존태도를 가진 집단은 메시지의 공정성을 비슷하게 평가하였다. 중립집단과의 비교 결과, 기존태도가 강한 집단의 경우 모두 평균점수에서 중립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 강한 태도를 지닌 양측 모두에게 중립적 기사는 공정성의 판단에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대한 무판단양방형 메시지 평가에서 일치집단과 불일치 집단 모두 중립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공정성 점수를 나타내어[태도 일치 vs. 태도중립, $F(1, 40)=7.80, p=0.008$; 태도불일치 vs. 태도중립, $F(1, 40)=8.27, p=.007$], 절대적인 적대적 매체지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사전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도 공정성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견

이 중립적인 사람과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편향된 메시지에 보였던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나타나는 것으로 기존 태도와 일치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동화편향이,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지각이, 나아가 중립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대조편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화와 대조에 의한 편향지각은 중립집단에 의한 메시지 지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는데, 중립집단은 일방적 메시지에 대해서 가장 낮은 공정성 점수를 부여했으며, 무편단양방향 메시지를 가장 신뢰하여 공정하다고 판정하였다. 즉, 이슈에 대한 태도가 강하지 않은 일반적인 언론 소비자의 경우 찬반 양쪽의 의견이 균형 잡히게 보도된 기사의 경우 비교적 공정한 것으로 판단하며,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을 내보내는 메시지의 경우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화와 대조에 의한 적대적 매체지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언론보도의 편향된 지각은 사회적 판단이론과 적대적 매체지각이 말하는 바와 같이 강한 사전 태도와 신념을 가진 당파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며 중립적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기존 태도라는 원인에 대한 분별적 결과가 이론적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공정성 연구가 단순히 공정성 잣대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보도나 프로그램의 공정성 정도를 판별하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공정성 판단의 객관적인 접근은 중립적인 언론소비자 혹은 이슈에 대해 관여도가 낮은 독자나 시청자를 가정한다. 즉, 방향에 치우침이 없는 중립적이고 가치 유보적 언론소비자는 언론의 공정성을 주어진 잣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편향되었는지 구별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가설 4>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기대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의 경우 이러한 중립적이고 유보적 입장의 언론소비자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언론소비자는 갈등적 이슈에 대해서 일정한 혹은

분명한 사전태도를 지니며 공정성 판단이 자신의 이해와 입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결과는 함의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의 공정성 판단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신뢰도 하락과 적대적 매체지각과 같은 부정적 현상은 이러한 수용자 측면에서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 접근을 요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우선 대조편향으로서 적대적 매체지각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찬반이 분명히 엇갈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 적대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과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일면 의미를 공유 할 수 있지만, 공정성 항목이 지니는 일반적 규범에 비해서 적대적 지각은 찬·반, 시·비와 같은 이분법적이며 양극적 관계에서 유불리를 결정하는 지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겠다. 측정된 공정성 항목이 리커트 척도에 의해 불공정성의 정도를 미디어의 부정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편향과 불신과 편들기와 같은 보다 직접적인 ‘적대적’인 매체지각의 요인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적대적인 매체를 평가하는 부정적 유인가(valence)를 측정하기보다는 공정한 언론에 대한 평가라는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로 인식될 수 있다. 물론 중립집단이라는 통제집단을 통한 비교가 안전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부정적인 미디어 지각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이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한 실험에서 학생들이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대별되는 강력한 태도를 결정화(crystalization)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슈 관여도가 충분하고 직접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집단을 통한 실험 연구의 모색이 요구된다.

Ⅰ 참고문헌

- 장명구 (1994). 『한국 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나남.
- 강태영 (2004).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정치.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정치』. 한국방송학회
- 문종대 (2004). 한국의 방송저널리즘과 정치: 공정성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6(1), 83~109.
- 문종대·윤영태 (2004). 언론 공정성 개념의 재개념화. 『한국언론정보학보』, 27, 93~122.
- 문종대·안치수·진현승·안순태 (2007).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8, 183~210.
- 박재영 (2005). 공정성의 실천적 의미: 문화일보 2002년 대선보도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49(2), 167~195.
- 백선기 (2002). 한국 신문의 선거보도에 있어서 공정성. 『제6차 쟁점과 토론』. 한국언론학회.
- 이민웅·이창근·김광수 (1993). 보도 공정성의 한국적 기준을 위한 연구. 방송언론인과 시청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36, 180~213.
- 오택섭·박성희 (2005). 적대적 매체지각: 메시지인가 메신저인가. 『한국언론학보』, 49(2), 135~166.
- 오택섭·박선희·이강형·민영 (2008). 텔레비전 후보자 토론회와 적대적 매체 지각. 『한국방송학보』, 22(4), 127~164.
- 이강형 (2007). 인지 일관성 이론에 근거한 텔레비전 후보 토론회의 효과: 합리적 투표, 설득, 선택적 지각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1), 272~303.
- 이준웅 (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규범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2), 139~172.
- 이준웅·최영재 (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뉴스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5), 5~36.
- 이창현 (2002). 대통령 서거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현황과 문제점. 『미디어 선거시대 선거방송 보도의 문제』, 방송위원회.
- 임태섭 (1993).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담론분석. 『언론과 사회』, 창간호.

67~109.

- 최영재·홍성구 (2004). 언론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6), 326~342.
- 황치성 (2007). 갈등이슈에 대한 개인 의견과 특정 신문에 대한 태도가 기사 편향지각에 미치는 영향: 적대적 매체지각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3), 308~327.
- Ahluwalia, R. (2000).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process underlying resistance to persua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 217~232.
- Arpan, L. M. & Raney, A. A. (2003).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news source and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2), 265~281.
- Beckman, L. (1973). Teachers' and observers' perceptions of causality for a child's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5, 198~204.
- Biek, M., Wood, W. & Chaiken, S. (1996). Working knowledge, cognitive processing, and attitudes: On the determinants of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547~556.
- Bothwell, R. K. & Brigham, J. C. (1983). Selective evaluation and recall during the 1980 Reagan-Carter debat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5), 427~442.
- Chaiken, S., Liberman, A. & Eagly, A. H. (1989). Heuristic and systematic processing within and beyond the persuasion context. in J. S. Uleman & John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pp. 212~252). New York: Guilford.
- Christen, C. T., Kannaovakun, P. & Gunther, A. C. (2002). Hostile media perceptions: Partisan assessments of press and public during the 1997 UPS strike. *Political Communication*, 19(4), 423~436.
- Coe, K. Tewksbury, D. Bond, B. J., Droogs, K., Porter, R. W., Yahn, A. & Zhang, Yuanyuan (2008). Hostile News: Partisan use and perceptions of cable news programm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8, 201~219.
- Dalton, R. J., Beck, P. A. & Huckfeldt, R. (1998). Partisan cues and the media: Information flows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1), 111~126.

- Ditto, R. H. & Lopez, D. F. (1992). Motivated skepticism: Use of differential decision criteria for preferred and nonpreferred conc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68~584.
- Ditto, P. H., Jemmott, J. B., III & Darley, J. M. (1988). Appraising the threat of illness: A mental representational approach. *Health Psychology*, 7, 183~200.
- Ditto, R. H., Scepansky, J. A., Munro, G. D., Apanovitch, A. M., Lockhart, L. K. (1998). Motivated sensitivity to preference-inconsiste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53~69.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nther, A. C. (1998). The persuasive press inference: Effects of mass media on perceived public opinion. *Communication Research*, 25(5), 486~504.
- Gunther, A. C. & Chia, S. C. (2001). Predicting pluralistic ignorance: The hostile media perception and its consequenc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4), 688~701.
- Gunther, A. C. & Christen, C. T. (1999). Effects of news slant and base rate information on public opinion inferenc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 277~292.
- _____. (2002). Projection or persuasive press? Contrary effects of personal opinion and perceived news coverage on estimates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2, 177~195.
- Gunther, A. C., Christen, C. T., Liebhart, J. & Chia, C-Y. S. (2001). Congenial public, contrary press and biased estimates of the climate of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65, 295~320.
- Gunther, A. C. & Liebhart, J. L. (2006). Broad reach or biased source? Decomposing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56(3), 449~466.
- Gunther, A. C. & Schmitt, K. M. (2004). Mapping boundaries of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54(1), 55~70.
- Gunther, A. C. & Storey, J. D. (2003). The influence of presumed influ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53(2), 199~215.

- Hastorf, A. H. & Cantril, H. (1954). They saw a game: A case stud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129~134.
- Hovland, C. I., Janis, I. L. & Kelly, J. J. (1953).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ouston, D. A. & Fazio, R. H. (1989). Biased processing as a function of attitude accessibility: Making objective judgments subjectively. *Social Cognition*, 7, 51~66.
- Kiesler, C. A. (1971). *The Psychology of Commitment: Experiments Linking Behavior to Belief*.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Krosnick, J. A. (1990). American's perceptions of presidential candidates: A test of the projection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Issues*, 46(2), 159~182.
- Kunda, A. (1987). Motivation and inference: Self-serving gener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36~647.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November), 480~498.
- Lord, C. G., Ross, L. & Lepper, M. R. (1979).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098~2109.
- Matheson, K. & Dursun, S. (2001). Social identity precursors to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Partisan perceptions of coverage of the Bosnian conflict. *Group Process & Intergroup Relations*, 4, 116~125.
- Miller, A. G., McHoskey, J. W., Bane, C. M. & Dowd, T. G. (1993). The attitude polarization phenomenon: Role of response measure, attitude extremity,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reporte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561~574.
- Pomerantz, E. M., Chaiken, S. & Tordesillas, R. S. (1995). Attitude strength and resistance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408~419.
- Pronin, E., Gilovich, T. & Ross, L. (2004). Objectivity in the eye of the beholder: Divergent perceptions of bias in self versus others. *Psychological Review*, 111, 781~799.

- Pyszczynski, T., Greenberg, J. & Holt, K. (1985). Maintaining consistency between self-serving beliefs and available data: A bias in information evaluation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179~190.
- Richardson, J. D., Huddy, W. P. & Morgan, S. M. (2008). The hostile media effect, biased assimilation, and perceptions of a presidential debat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5), 1255~1270.
- Schmitt, K., Gunther, A. C. & Liebhart, J. L. (2004). Why partisans see mass media as biased. *Communication Research*, 31(6), 623~641.
- Sherif, M. & Sherif, C. W. (1967). Attitude as the individual's own categories: The social judgment-involvement approach to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In C. W. Sherif & M. Sherif (Eds.), *Attitude, ego-involvement and change* (pp. 105~139). New York: Wiley.
- Tajfel, H.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Vallone, R. P., Ross, L. & Lepper, M. R. (1985).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577~585.
- Wood, W., Pool, G. J. (1998). Structural consistency and the deduction of novel from existing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66~89.
- Wyer, R. S. & Frey, D. (1983). The effects of feedback about self and others on the recall and judgments of feedback-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540~559.
- Zanna, M. P., Klosson, E. C. & Darley, J. M. (1976). How television news viewers deal with facts that contradict their beliefs: A consistency and attribution analysi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59~176.

(투고일자: 2009.02.27, 수정일자: 2009.04.09, 게재확정일자: 2009.04.20)

Ordinary Press Consumers' Predisposed Attitude's and Fairness Judgment

Cha-Su Ah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yungnam University)

Press (un)fairness has been a social issue in Korea. The previous research focused mainly on the suggestion of fairness norms, principles, concepts, and definitions. Also, the research tried to measure the degree of fairness by analyzing press contents. This study attempted to overcome the media- and source-oriented approach proposing ordinary press consumers' perspectives. The study posited that one's fairness judgment would be greatly influenced by his or her preexisting attitudes on issue. Based on social judgment theory and hostile media perception framework, the research expected 'assimilation' bias for attitudinally congruent group and 'contrast' bias for attitudinally incongruent group. An 3x3x2 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to test the theoretical predictions. The results found assimilation and contrast bias for strong attitude groups who read one-sided and two-sided messages. The results also implied hostile media perception occurred by selective categorization. Also the difficulty and limitation of traditional fairness judgment and media-centered approach was discussed.

Key words: press fairness, social judgment theory, hostile media perception, assimilation bias, contrast bias, experiment